

호모 몬스터쿠스 :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주 기 화**

■ 목 차 ■

I. 머리말	III. 근대의 나쁜 번역 :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II. 괴물 생성 철학	IV. 맺음말

[초록]

이 논문은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에 등장하는 괴물을 인간-비인간(nonhuman)의 이질적인 연결망(network)으로 보고 ‘호모 몬스터쿠스’(Homo monstercus)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19세기 영소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의 괴물성은 그동안 심리학적, 페미니즘적, 정신분석학적,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타자에 대한 은유나 인간 본성에 대한 알레고리로 해석되어 왔다. 과거의 선행연구들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피조물이 괴물로 재구성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글은 현대의 과학철학 이론인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의 ‘개체화를 통한 생성 존재론’,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되기’(becoming, 생성),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와 미셸 칼롱(Michel Callon)의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Theory : ANT) 관점에서 이 괴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객관적인 존재성을 확보하는지 그 변형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필자의 논의는 괴물-되기, 인간 진화, 포스트휴먼과 맞물려 있다.

주제어 : 프랑켄슈타인, 호모 몬스터쿠스, 괴물-되기, 포스트휴먼, 행위자-연결망 이론(ANT), 브루노 라투르, 미셸 칼롱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글로벌박사펠로우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2H1A2A1013501).

**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수료. kflowerju@hanmail.net

I. 머리말

마크 S. 블럼버그(Mark S. Blumberg)는 『자연의 농담 : 기형과 괴물의 역사적 고찰』(*Freaks of Nature : What Anomalies Tell Us about Development and Evolution*)에서 18-19세기에 “괴물(monster)에 대한 군중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다”(21)고 평가한다. 그래서인지 19세기 문학 작품 속에는 괴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에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Victor Frankenstein)은 시체들에서 아름다운 신체 부분들만을 취사선택하고 생명의 불꽃을 가미하여 괴물을 만든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에서 지킬 박사(Dr. Jekyll)는 화학약품에 의해 전혀 다른 사람인 하이드(Mr. Hyde)로 변신하곤 하는 괴물이다.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The Picture of Dorian Grey*)에서 도리언 그레이(Dorian Grey)는 영원히 늙지 않은 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주로 페미니즘, 마르크시즘, 정신분석, 탈식민주의, 윤리,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주변인의 위치에 있는 모든 타자와 비정상인에 대한 은유나 상징으로 또는 인간 본성과 심리, 위험한 기술과학에 대한 알레고리로 해석되어 왔다. 산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전 구바(Susan Gubar)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괴물은 19세기 여성의 주변적 위치를 상기시키는 “변장한 여성”(a female in disguise 237)이며, 마르크시즘적 관점에서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는 괴물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69)로 해석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피터 브룩스(Peter Brooks)는 괴물을 “의미의 과잉”(an excess of signification 218)과 극단적인 “호기심과 지식에의 산물”(product of curiosity or epistemophilia 218)로 본다. 김종갑은 셸리가 미학적 관점에서 괴물의 추한 모습까지 긍정하는 “숭고의 미학을 옹호”(2005 : 22)한다고 보았으며, 윤리적 관점에서 “사이보그나 로봇, 동물을 비롯해서 수많은 타자에 대해 윤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2013 : 33) 갖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프랑켄슈타인』을 “포스트휴머니티의 가장 기원적이면서 전범적인 텍스트”(2013 : 33)로 본다. 테렌스 홀트(Terrence Holt)와 앤 멜로(Anne K. Mellor)는 『프랑켄슈타인』을 과학소설로 보고 과학적 배경과 장치, 여러 쟁점들을 분석하였다(Holt, 1990. Mellor, 1995).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프랑켄슈타인』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논의가 다 이루어진 듯이 보인다. 그러나 모리스 레비(Maurice Lévy)가 “여전히 모든 것은 이야기해야 할 상태

로 남아있다”(베네갈도 13)고 말했듯이 괴물은 여전히 우리가 사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21세기에 ‘프랑켄슈타인 산업’(Frankenstein industry)을 초래한 이 작품이 영화, 연극 등으로 많이 상연되고 공연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메리 셸리가 던진 문제의 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이 보인다.

복제 인간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필자는 이 괴물이 문학적 비유와 상징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nonhuman)의 이질적인 연결망(network), 하이브리드(hybrid, 혼종), 새로운 인류, 포스트휴먼(posthuman)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선행연구가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피조물이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 괴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필자는 현대의 과학철학 이론을 빌어서 그러한 괴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또 객관적인 존재성을 확보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필자의 논의는 괴물-되기, 인간 진화, 포스트휴먼과 맞물려 있다.

본론에서 필자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을 것이다. 첫째는 이론적 틀로서, 괴물이 실제로 생성하는 과정을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의 ‘개체화를 통한 생성 존재론’과 이를 발전시킨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되기’(becoming, 생성), 그리고 두 사람의 통찰을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시킨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와 미셸 칼롱(Michel Callon)의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Theory : ANT)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철학을 관통하는 ‘관계적 생성 존재론’(relational becoming ontology)을 ‘괴물 생성 철학’이라고 부르고 ‘호모 몬스터쿠스’(Homo monstercus)라는 용어를 제안할 것이다. 둘째로, “Ⅲ. 근대의 나쁜 번역 :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서는 ANT 관점에서 특히 칼롱의 ‘번역의 3 단계’ 개념에서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괴물을 인간-비인간의 이질적인 연결망, 하이브리드로 분석하면서 이 괴물 존재가 사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즉 민주적이지 않은 독단적인 기술과학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 괴물은 근대의 정화와 번역 속에서 번역의 일반적 문제, 근대의 나쁜 번역을 실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잘 보여준다. 맺음말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대한 기존의 비평과는 달리 이 괴물을 인간과 비인간의 이질적인 연결망, 하이브리드, ‘호모 몬스터쿠스’, 새로운 인류, 포스트휴먼의 한 형태로 파악함으로써 기술과학에 기반을 둔 문학 작품 다시 읽기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인간과 포스트휴먼에 관한 이해에 유용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Ⅱ. 괴물 생성 철학

인간이 괴물이 되는 가변적이고 생성적인 개체의 속성, 바로 이 지점이 시몽동의 “개체화”(individuation)를 통한 생성 존재론에 대한 연구가 적절해지는 지점이다. “시몽동이 파악한 존재는 자기 동일적 단일성을 지닌 안정적 실체가 아니라 [...] 실재성을 지닌 퍼텐셜(potential) 에너지로 가득 찬 준안정적인(metastable) 시스템과 같다. 이 준안정적인 존재는 금방이라도 결정체를 산출할 수 있는 과포화 용액을 닮았다”(시몽동 105). 이 과포화 용액에 결정 조각을 넣어주면 과잉되어 있던 용질이 곧바로 결정으로 석출되면서 안정된 포화용액으로 변한다. 과포화된 긴장(tension) 상태는 실재(real) 수준의 퍼텐셜을 항상 몰래 갖는다. 이러한 긴장 상태에 결정적인 불균형이 생겨나면 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virtual)이었던 퍼텐셜이 현실적(actual)이 되면서 새로운 개체가 생성된다. 물론 새로 생성된 개체도 퍼텐셜을 몰래 지닌 시스템을 만들며 개체화의 과정은 계속 진전된다. 준안정적 상태에서 준안정적 상태로 이행해가며 개체화하는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진화한다. “과포화용액의 이런 결정화 과정은 존재의 개체화 과정을 유비적으로 드러낸다. 개체화는 시스템에 내재하는 불일치, 긴장, 양립불가능성의 문제를 개체의 발생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시몽동 105)이다. 개체를 긴장상태를 지닌 시스템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체를 항상 새로운 개체로 생성해 나가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몽동의 개체화를 통한 생성 존재론이다. 그는 “퍼텐셜들은 미래 상태들의 단순한 잠재성이 아니라, 그 미래 상태들이 존재하도록 밀어붙이는 실재성”(시몽동 222)이라고 말한다.

시몽동의 이러한 생성 존재론은 들뢰즈로 계승되는데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에서 시몽동의 개체 생성, 개체화를 전-개체적 장(pre-individual fields)인 잠재성(virtuality)에서 차이(difference)의 강도(intensity)에 따라 현실성(actuality)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다룬다(246-247). 그에게 있어 실재의 존재방식, 차이의 존재론은 매순간 자기 자신과 달라지는 것이다.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는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에서 이러한 “되기”(becoming) 개념을 인간이 인간에 대한 기억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반(反)기억”(antimemory 294), 무어라 명명할 수 없고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각할 수 없는”(imperceptible 279), “식별 불가능한”(indiscernible 279)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되기’는 모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괴물-되기’(becoming-monster)라고 할 수 있다. 이 ‘되기’는 혈통의 외부와 결합하는 결연관계의 선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일단 다른 종류의 삶을 향해 자신을 변용하려는 의지와 욕망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양태가 되기 위해 문턱을 넘는 힘, 최소한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 이 ‘되기’ 개념은 “혈통이나 계통”(descent and filiation)이라는 친자관계의 선을 따라 발생하는 진화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Deleuze, 1987 : 238).

그러나 이제 인간이 유전 메커니즘을 만지작거리게 된 이후 ‘되기’의 핵심인 의지와 강도도,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주장하는 진화론의 핵심인 친자관계나 혈통도 인간 진화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진화의 제약은 사라졌고, 질주하는 진화 열차에 올라탄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꼭 잡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열차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바깥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디스토피아를 향해 치달고 있다면 기필코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것은 열차를 탈선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 같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포스트 휴먼”(5)을 이야기한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포스트휴먼이 될 것인가가 아니다. 포스트휴먼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포스트휴먼이 되느냐이다”(Hayles 246).

시몽동과 들뢰즈의 생성 존재론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이다. 지금의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술한 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의 이중적인 연결망 그 자체에 다름 아니다. 나의 행위 능력이란 나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술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인간, 비인간에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복잡하고 이중적인 네트워크들이 접혀져(folding) 있다”(홍성욱 23). 시몽동 또한 기술의 핵심을 관계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연결망에는 가족, 친구, 동료 같은 인간만이 아니라 책, 휴대폰, 컴퓨터, 돈, 커피 등 다양한 종류의 비인간이 포함된다. 그는 기술과학(technoscience)이 인간을 소외시키기는커녕 새로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술과학은 인간이 원해서 만들고 발전시킨 것들이지만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해서 항상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낳는다.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말이다.

시몽동의 이러한 통찰은 1980년대 라투르, 칼롱, 존 로(John Law)가 함께 개발한 ‘행위자-연결망이론’(ANT)에서 더 정교한 형태로 발전한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는 인간, 비인간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연결망,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존 로는 “사회, 조직, 행위자, 기계가 모두 인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질료로 이루어진 패턴화된 연결망 속에서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한 방식으로서 [...] 이질적인 연결망이라는 은유”(380)를 사용한다. 라투르는 이러한 이질적인 연결망들, 사회기술적인 연결망들, “하이브리드들, 괴물들이 [...] 곧 모든 것이다”(Latour, 1993 : 47)라고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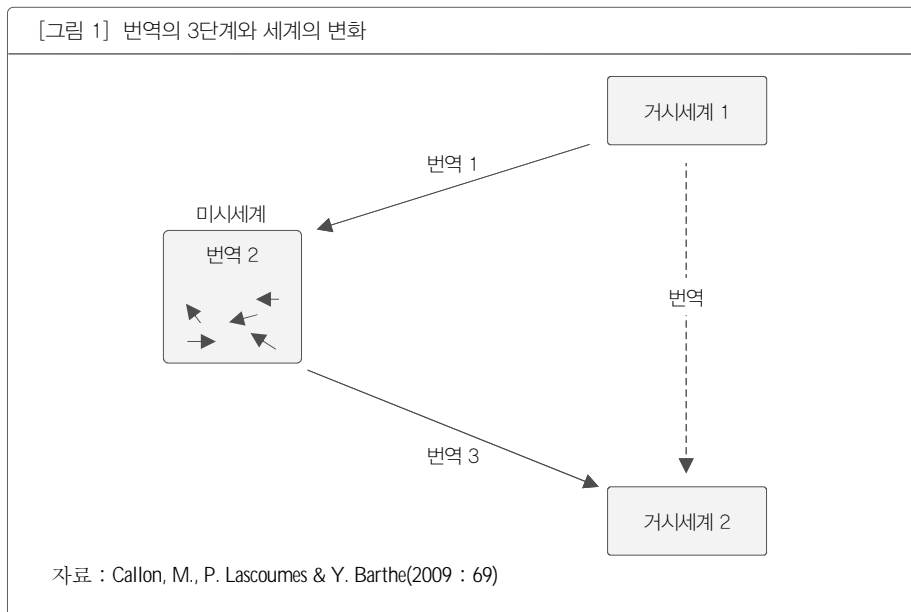
그러나 근대적 지식과 학문에서는 인간/비인간, 문화/자연의 이원론적 존재론을 전제하면서 문화/자연의 분리(=정화, purification)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근대인들은 정화의 실천을 통해 인간/비인간, 문화/자연을 구분하지 못했던 전근대인들의 비합리성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자부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인들은 입으로는 이원론, 분리, 정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기술과학을 통해 인간-비인간이 결합된 수많은 이질적 연결망, 하이브리드들, 괴물들을 성찰 없이 양산하는(=번역, translation) 모순을 저질렀다(Latour, 1993 : 10-11). 그래서 라투르는 “누구도 근대인이었던 적은 없었다. 근대성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근대 세계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Latour, 1993 : 47)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번역’ 개념은 미셸 세르(Michel Serre)에게서 빌려온 것인데, 라투르는 “번역은 베끼고, 순서를 바꾸고, 옮기고, 다른 말로 바꾸는 그 모든 것, 따라서 ‘변형하여 전달하기’ transporter en transformant입니다”(라투르 40)라고 말한다. 규제 없이 무한정 증식된 하이브리드에는 기후변화, 광우병, 유전자조작식품, 줄기세포, 나노기술, 원자력 발전소 등과 같은 사회기술적 논쟁들과 지구적 생태 위기들이 있다. 라투르는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이해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들 간의 이중 교배는 더욱 더 가능성이 높아지며” 하이브리드를 인식하고 “괴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표상함으로써 그 증식(proliferation)의 속도를 완화시키고 방향을 재조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Latour, 1993 : 12). 이때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들이 항상 변하고 계획한 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나 창의적인 혁신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기술의 궤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결과에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연결망의 형성 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인간-비인간 연결망, 하이

브리드, 괴물을 만드는 것이다.

ANT에서는 연결망 내에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인간, 비인간 행위자의 정체성이 규정된다고 본다. 즉 인간, 비인간의 원인, 본질은 없으며 결합, 이질적인 연결망만 존재할 뿐이다. 인간들도 이질적인 연결망의 결과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비인간의 결합, 하이브리드, 괴물이다. ANT는 초기에 인간과 비인간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기술과학적 하이브리드들이 출현하고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몰두하였다. 이는 ‘결합의 사회학’, ‘번역의 사회학’이라고도 불린다. 이 초기 이론을 2009년 칼롱과 그의 동료들이 번역의 3단계(three stages)로 심화 확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Callon 48-70).

지금까지 살펴본 시몽동의 ‘개체화과정’, 들뢰즈의 “되기”, 라투르와 칼롱의 ‘ANT’는 모두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 생성 철학 계열에 속한다. 나는 이중에서 특히 라투르와 칼롱의 ANT의 관점에서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칼롱의 번역의 3단계 개념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김환석 19, Callon 69).



1. 번역1 : 거시세계(Macrocosm)에서 미시세계(Microcosm)로

거시세계를 실험실의 미시세계로 축소시키는 단계다. 이때 “운송”(transportation)과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된다(Callon 49). 운송은 바깥세계의 일부가 실험실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고 변형은 실험실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실은 바깥세계와 거리가 유지되나 여전히 연결되는 세계이다. 이때 실험실 바깥에서는 제어가 힘들었던 거시세계를 실험실에서 아무 방해 없이 조작 가능한 규모로 축소할 수 있으므로 “힘의 관계가 역전된다”(Callon 50). 바깥세계에 대해 인간은 약자에서 강자로 바뀐다. 그래서 라투르는 “나에게 실험실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들어올리리라”(Latour, 1983 : 141)라고 한 것이다.

2. 번역2 : 연구집합체(the research collective)의 작동

미시세계인 실험실은 인간(연구자, 기술자)과 비인간(도구 등)으로 구성된 연구집합체라 할 수 있다(Callon 56). 이들은 “기입”(inscription)을 만든다(Callon 51). 기입이란 연구집합체의 구성원인 인간, 비인간 모두가 컴퓨터의 화면과 인쇄물, 실험실 노트 등에 나타내는 것들로서, 과학자들은 이 기입들만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하고 기술하고 판독한다. 이들은 시행착오와 불확실성 속에서 “가능한 새로운 세계”(Callon 59)를 탐색한다.

3. 번역3 : 거시세계로의 복귀

새로운 가능성들을 실험실 밖으로 끄집어내어, 실험실에 국한된 미시세계의 국지적 사실들을 다시 거시세계로 복귀시키는 단계이다. 실험실에서 얻은 것을 잃지 않고 번역3을 달성하는 방법은 “사회의 실험실화”(laboratorization of society)에 있다(Callon 67). 이는 실험실 모형을 사회의 모든 전략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시세계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연구된 대상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 영향력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행위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된 일련의 행위들”을 칼롱은 “엔테레스망”(interessement 61)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번역의 3단계 연쇄와 실험실을 통한 우회는 거시세계의 부분적 재구성을 초래한다. 거시세계1에서 2로의 이행, 가능성의 세계들에 대한 탐색은 우리가 “정치”(politics)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Callon 68). 기술의 발전에 상응하여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와 연동하여 기존의 정치, 경제, 문화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러한 탐색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기술과학과 연관된 중요한 선택들이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 의한 고립된 연구(secluded research)에 의해 진정한 토론이나 협의(consultation) 없이, 즉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독점되어 왔다. 그래서 라투르는 인간-비인간의 결합, 자연-문화의 결합, 이질적 연결망, 하이브리드가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통세계를 이루기를”(Latour, 2004 : 54) 바란다. 이 공통세계란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특정한 문화를 통해 결합되는 모든 존재들의 배열agencement”(라투르 134)을 의미한다.

라투르의 이러한 ‘정당한 절차’ 민주주의에 대해 칼롱 및 그 동료들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평범한 시민들과 비전문가들이 지식의 생산은 과학자라는 대표에게, 집합체의 구성은 정치가라는 대표에게 각각 위임하는 “위임 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험실의 고립된 연구와 바깥세계의 연구가 결합된 협력연구(collaborative research)가 이루어지는 “대화 민주주의”(dialogic democracy)를 제안한다(Callon 135). 위임 민주주의의 한계는 비전문가와 시민들이 대표들(과학자, 정치가)에게 일단 모든 것을 위임하면 더 이상 협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대화 민주주의’는 대표들과 시민들 사이에 새로운 공적 공간인 “하이브리드포럼”(hybrid forum)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다(Callon 18). 이제 ‘하이브리드포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발달로 실로 다양한 쟁점들을 상시적으로 다루고, 대표와 피대표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집단성이 가능한 세계를 모색하는 공간으로 진화중이다. 새롭게 재구성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위상의 존재자, 새로운 주체, 포스트휴먼으로 변화되고 창조되고 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과 비인간의 이질적인 연결망, 하이브리드, 괴물이었다. 순수한 인간이란 환상이다. 이 괴물은 크게 ①유전자 변형(비자연적인 것, unnatural) ②인간 강화(초자연적인 것, supernatural) 프로그램에 의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16세기에 괴물을 비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과 정확히 일

치한다.

그런데 이 괴물에 대한 정의가 너무도 다양각색이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연은 원래 언제나 법칙에 예외를 두며 전형적인 것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자연계의 비정상적인 생명체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비정상 생명체를 기형(freak)이나 괴물(monster)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전형(archetype), 정상으로부터 비정상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괴물’(monster)이라는 단어는 ‘경고하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모네레’(monere)에서 파생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작은 사회 집단 속에서 기형이나 괴물의 발견은 죽음, 파괴, 기아와 같은 현상의 전조나 신의 계시로 해석되었으리라.

16세기 들어 이 괴물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1573년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는 괴물들을 ①기형, 비자연적인 것 ②경이로운 것, 초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1616년 포르투니오 리체티(Fortunio Liceti)는 파레의 구분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상상의 산물로 여겨 제외한다. 18세기 후반 에티엔 조프루아 생틸레르(Étienne Geoffroy Saint-Hilaire)는 리체티가 괴물로 분류한 비자연적인 것들 또한 동물계를 규정짓는 엄격하게 결정된 법칙과 규칙이 적용된 존재라면서 “괴물 역시 정상적인 존재다. 세상에 괴물은 없다”(Blumberg 27 재인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파레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과 기계의 결합, 인간과 동물의 결합에 의한 하이브리드가 그것이다. 또한 최근 BT(Bio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NT(Nano Technology)의 발달과 이들의 융합 기술 덕분에 비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그래서 ‘괴물’은 비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들 모두를 통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결국 16세기 괴물에 대한 정의를 재활용한 셈이다.

라메즈 남(Ramez Namm)은 『인간의 미래』(More than Human: Embracing the Promise of Biological Enhancement)에서 “우리는 진화의 종착점에서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진화에는 종착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리는 그저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 인류는 유전자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아이들에게 득이 되는 새로운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198)고 말한다. 생명공학의 진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과학 소설의 상상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현실 생활에서는 시험관 아기, 인공장기, 의치, 의족, 스포츠 선수들의 약물 복용, 약물과 호르몬에 의한 인간 본성의 변화, 성형 등이 일상화

되었다. 기술과학은 인류 진화의 최전선에서 미래를 앞당기고자 분투하고 있다. 인간은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창조하면서, 보다 괴물스러운 능력과 모습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조엘 가로(Joel Garreau)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DARPA)은 세계적으로 인간 강화 부문에서 선두에 있는 기관으로서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19) 기술들, 즉 인간을 더욱 대담하고, 더 훌륭하고, 더 강하고, 더 빠르며, 더 영리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창조해내고 있다.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것들이 DARPA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간 강화 기술이다. 타인이나 동물의 장기, 인공 장기, 기계 장치들과 결합되고, 약물과 유전자 치료로 성격마저 바뀐 새로 만들어진 인간을 전통적인 의미의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수없이 절단되고 접합된, 정신 능력이 탁월한 인간의 모습은 실로 괴물 같을 것이다. 그러한 괴물은 한편으론 징그럽고 혐오스럽지만, 한편으론 인류가 지향하는 모습이 아닌가? 인간은 보다 괴물 같은 능력과 모습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전공학 등의 과학 기술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잠재력을 갖는다. 이제 현대 인류는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신체와 정신의 강화와 확장, 신체성 없는 주체의 등장, 다양한 성 주체성, 인간-기계, 인간-동물의 혼종성 등을 특징으로 나타내면서 전통적인 인간 개념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 신상규는 이처럼 “혼종적이고 유동적이며 중층적인 인간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의 틀이 요구된다”(6)고 말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 ‘괴물 같은 인류’를 ‘호모 몬스터쿠스’(Homo monstercus)로 명명하고자 한다. 인간은 비인간과 이질적인 연결망을 이루는 존재, 하이브리드, 괴물, 즉 ‘호모 몬스터쿠스’다. 전통적 개념의 정화된 인류는 이제 생각하지 마라. 순수 인간은 환상이며 향수다. ‘호모 몬스터쿠스’, 하이브리드, 괴물, 이질적인 연결망만이 진화중이다. 필자가 인간을 ‘호모 몬스터쿠스’로 정의한 데는 부수적인 효과도 염두에 둔 것인데, 그것은 혐오스러움, 괴상함, 비정상의 대명사 격인 괴물(monster)이라는 단어를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데 전유함으로써 기존의 인간/괴물, 인간/비인간, 정상/비정상, 문화/자연 등의 이분법의 선을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어 기존에 통용되던 언어가 가지는 인과관계 속의 결정을 중지시키고자 함이다. 정화와 번역이라는 근대적 사회의 윤리에 따라 그어졌던 괴물과 인간의 경계를 무력화(neutralization)시키고자 함이다. 또한 이

질적인 연결망, 사회기술적인 연결망, 하이브리드, 괴물들의 출현에 당혹할 필요 없이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정반대의 함의를 포착해내는 능동적인 상상력을 통해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함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인간은 항상 변하며, 생성하며, 재조정되는 대상이다. 19세기 영소설 속에 출몰하는 괴물은 이를 잘 나타낸다.

Ⅲ. 근대의 나쁜 번역 :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프랑켄슈타인』에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이상적인 인간형을 목표로 “행복하고 우수한 수많은 생명체”(shelley)¹를 탄생시킬 꿈에 부른다. 이 꿈은 ‘생명체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험으로 이어진다. 이는 칼롱의 번역의 3단계 중 번역1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빅터는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크렘페 교수(M. Krempe)와 발트만 교수(M. Waldman)의 지도하에 연구와 실험에 몰두하느라 밤을 꼬박 새곤 한다. 그리고 생명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바깥세계인 지하납골당이나 시체안치소에서 며칠밤낮을 보내며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탐구한다.

나는 납골당에서 뼈를 수집했고, 불경스런 손으로 인간 신체의 엄청난 비밀을 침해했다. 꼭대기 층에 있는 나만의 방에서, 아니 차라리 감방이라 해야 할, 복도와 계단을 사이에 두고 다른 방들과 분리된 곳에서 추악한 창조 작업을 계속해나갔다. [. . .] 해부실과 도살장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많은 재료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I collected bones from charnel-houses and disturbed, with profane fingers, the tremendous secrets of the human frame. In a solitary chamber, or rather cell, at the top of the house, and separated from all the other apartments by a gallery and staircase, I kept my workshop of filthy creation; [. . .] The dissecting room and the slaughter-house furnished many of my materials; (36-37)

빅터는 고립된 연구실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한 가지 연구에 매달리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고, 친구들과 가족들조차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시체들을 연구실로

1. 앞으로 『프랑켄슈타인』 본문 인용시 특별한 서지사항 언급 없이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할 것이다.

운송하고, 시체들로부터 아름다운 신체 부분들만을 취사선택하여 생명의 불꽃을 가미한다. 실험실 안에서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칼롱의 번역의 3단계 중 번역2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괴물은 키가 240cm에 머리칼은 까맣게 윤기가 흐르고, 이빨은 진주처럼 희다. 그러나 필요한 인간 신체 부분들의 우수성과 비율을 고려했건만, 짜깁기하여 만들었기 때문인지 예상과 달리 보기에 끔찍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참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토록 엄청난 노고와 정성을 다해 만든 괴물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사지는 비율을 맞추어 제작되었고, 생김생김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했다. 아름다움이라니! 하느님, 맙소사! 그 누런 살갗은 그 아래 비치는 근육과 혈관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했다. 검은 머리칼은 윤기를 내며 흘러내렸고 이빨은 진주 빛깔처럼 희었지만, 이런 화려한 외모는 희끄무레한 눈구멍과 비슷한 색깔의 축축한 눈과, 주글주글한 얼굴, 그리고 일자로 다문 시커먼 입술과 대조되어 더욱 끔찍해 보일 뿐이었다.

How can I describe my emotions at this catastrophe, or how delineate the wretch whom with such infinite pains and care I had endeavoured to form? His limbs were in proportion, and I had selected his features as beautiful. Beautiful! – Great God! His yellow skin scarcely covered the work of muscles and arteries beneath; his hair was of a lustrous black, and flowing; his teeth of a pearly whiteness; but these luxuriances only formed a more horrid contrast with his watery eyes, that seemed almost of the same colour as the dun white sockets in which they were set, his shrivelled complexion and straight black lips. (39)

빅터의 실험실에서의 연구 과정인 번역2에서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연구집합체를 형성하여 참여한다. 빅터가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과학적 성과들이 모두 동원되며 도구, 시약, 전기 등이 사용된다. 강력하고 잘 통합되어 있으며 좋은 장비를 갖춘 이 실험실에서 세계는 보다 용이하게 조작 가능해진다. 시체들을 짜깁기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이 피조물은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된 이질적인 연결망,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은 실패한다. 빅터의 예상과 달리 괴물은 끔찍하고 혐오스러워 쳐다볼 수조차 없다. 기술은 항상 계획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예상치 않은 결과를 얻곤 한다.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의외의 연구 결과에 당황하지 않

고 새로운 연결망의 형성과정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인간-기술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도 빅터는 실험의 결과물인 괴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한다.

메리 셸리는 이 번역²의 과정에서 생명 창조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실제 과정을 생략한 채 재료와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어둠의 한 가운데서 돌연한 빛이 내 마음을 비추었고” 또한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34)고만 서술한다. 독자들을 약간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 부분을 홀트는 기술자들의 용어인 “블랙박스”(black box)에 비유하면서(113), 셸리가 19세기 과학적 지식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 당대 과학자들의 실증적인 지식 이상의 것인 문학적 상상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프랑켄슈타인』과 관련된 세 가지 과학적 배경을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Erasmus Darwin)의 분류학과 진화론, 험프리 데이비(Humphrey Davy)의 화학 이론, 루이지 갈바니(Luigi Galvani)의 전기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앤 멜로의 분석에 따르면 셸리가 당시 과학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소유했음이 확실하다(1). 홀트의 분석은 ANT 관점을 적용하면 논리적으로 더 쉽게 이해된다.

홍성욱에 따르면 “공학에서 블랙박스는 어떤 것이 그 내적인 특성보다 외적인 입-출력의 관계로서만 파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23), ANT에서는 이종적인 연결망이 행위자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결절(punctualization), 블랙박스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블랙박스 속의 연결망을 보지 못하면서 이것을 외부의 입-출력에만 의존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점에 주목한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피조물은 이종적인 것들의 연결망이 하나의 행위자인 결절로 나타난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으며, 셸리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수년 동안 집적한 연구 기술, 즉 복잡하고 이종적인 연결망들의 접합을 어둠과 빛으로 문학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셸리의 괴물 생성, 새로운 인간 존재 창조는 문학적, 과학적 의미를 동시에 성취한다.

한편 이 괴물은 외모와 달리 감성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으며, 몽블랑의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오르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는 야생 동물 같은 강인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지녔으며, 수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지적 수준이 높은 존재이다.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이 탄생시킨 괴물을 인간보다 더 진화된 존재로 묘사한다. 그러나 빅터는 자신이 만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고찰 없이 결만 보고 즉흥적으로 판단하여 괴물을 유기한 것이다.

이 괴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괴물은 원래부터 마음이 선하고, 영혼은 사랑과 박애로 빛나며,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다. 괴물 자신은 축사에 살면서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착한 정령이 되어 몰래 땀감을 모아주고 눈을 치운다. 뛰어난 지력을 지닌 괴물은 아랍 처녀 사피(Safie)보다 더 빨리 언어를 터득하며, 독서를 통한 통찰력으로 사회체제를 비판한다. 그는 끊임없이 “나는 무엇일까?”(What was I? 97) 자문하며 자신의 존재와 인간됨에 대해 성찰한다. 자신을 위해 여자 괴물을 만들어 달라고 빅터를 설득하는 괴물의 언변은 논리적이고 논조는 정당하다. 괴물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소망이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공동체 추구이므로, 괴물은 빅터보다 숭고한 인간성을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괴물이 빅터보다 더 진화된 존재로 그려지는 역전의 가능성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현실화되는데, 창조주 빅터는 죽고 피조물인 괴물은 장작불에 타서 죽겠다는 말만 남기고 멀리 사라진다.

이처럼 괴물의 긍정적인 묘사는 인간들의 타락하고 퇴화된 모습들과 선명하게 대조된다. 좋은 가문 출신의 고등교육을 받은 빅터는 괴물을 창조하지만 순간 혐오감을 느끼고 무책임하게 유기한다. 괴물이 살인자라고 확신하면서도 자신이 괴물의 창조주라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아편으로 달래는 비겁하고 퇴행적인 빅터의 모습은, 기술의 궤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결과에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연결망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면서 과거에는 없던 인간-기술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할 창의적인 과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며, 괴물 내면의 숭고하고 투명한 미와 선과 대조되어 자민족·자문화 중심주의적 편견을 잘 보여준다.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은 괴물은 인간 공동체에 합류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그를 내쫓거나 죽이려한다. 빅터의 실험실 연구와 사회가 기대하는 바 사이에 간극이 큼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괴물은 너무 외로운 나머지 여자 괴물을 만들어달라고 절규하고, 이 간절한 바람은 창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빅터는 스코틀랜드 외진 곳에 실험실을 차리고 여자 괴물 창조에 착수한다. 여자 괴물이 거의 완성될 무렵 그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즉 여자 괴물이 남자 괴물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점, 남자 괴물을 싫어하여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두 괴물이 번식에 성공하면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만들던 여자 괴물을 갈가리 찢어버린다. 빅터가 첫번째 괴물 창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두 번째 여자 괴물 창조에 대해 매우 신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빅터는 자신이 만든 인공물인 여자 괴물의 자율성을 간파한

것이다. 괴물의 재생산, 증식은 실패한다. 번역의 3단계 중 번역3, 사회의 실험실화에 실패한 것이다. 행복하고 우수한 수많은 생명체를 탄생시킬 새로운 가능성은 선택되지 않는다.

만일 빅터가 여성 괴물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찰스 다윈은 “만약 괴물 같은 형상의 생명체가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고 또 생식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 좋은 환경 속에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1962 : 59)고 본다. 아마도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피조물인 괴물 또한 생식이 가능했다면 빅터의 예상대로 보존되고 번창하였을 것이다. 만약 시체를 짜깁기하는 융합 기술이 더욱 정교하게 발달하고, 실험실 밖의 사람들이 괴물을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문화가 아니었다면 번역3은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괴물의 짜깁기가 매끄럽고 우수하여 그 조약함과 혐오스러움이 상쇄되었더라면, 그리고 사회문화가 성숙하여 다른 사람들이 괴물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엔테레스망은 불가능하지 않았으리라. 만일 빅터의 실험이 공개적이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당시의 자문화 중심적이고 기독교적인 영국의 사회문화적 토양에서는 생명체를 창조하고자 함은 생각만으로도 신성모독이어서 빅터가 행한 실험 류 자체는 부정되고 봉쇄되었다. 똑같은 기술과 학이라도 어떤 사회적 맥락, 즉 어떤 연결망에 편입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진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이다. 특정한 조건에서만 그것은 괴물이 된다. 괴물과 인간의 경계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상상적)인 것이다. 19세기 영국은 이 괴물을 거부했고 자문화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편협한 세계는 변형되지 않는다. 21세기의 포스트모던적 풍토에서는 이 괴물이 번역3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마도 19세기보다는 클 것이다. 이처럼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인간-비인간의 이질적인 연결망,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며, 사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민주적이지 않은 독단적인 기술과학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근대의 정화와 번역 속에서 번역의 일반적 문제, 근대의 나쁜 번역을 실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 괴물은 영화 <터미네이터>(The Terminator 1984)에서 근육질의 아놀드 슈왈츠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연기했던 미래에서 온 초강력 안드로이드 로봇을 연상시킨다. 영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이 로봇은 진화하는데 자가 재생되는 생체 피부,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축구경기장 만큼의 거리를 한번에 점프할 수 있는 능력, 360

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 골격의 크기를 조절하여 변형 대상으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20세기 중반에 이와 같은 능력들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았지만 21세기의 인류는 이러한 능력들이 뉴스나 신문에 등장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는 영화 속의 초능력을 가진 영웅 무리들에게서 오늘날 이미 존재하거나 혹은 개발되고 있는 기술의 개요를 본다. 조엘 가로에 따르면 DARPA는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텔레키네틱스 기술, 잠을 자지 않고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외골격 전투복 등 SF 영화에나 나오는 인간 강화 기술을 연구 추진하고 있다. 인류는 장차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라메즈 남은 인간은 “질병 치료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정신과 육체를 조각할 수 있는 능력”(55)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유전자 치료는 멋진 근육과 검게 그을린 피부색을 만들고, 대머리를 치료하는 간단한 미용술(cosmetic gene therapy 40) 정도로 광범위해 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자신을 바꾸거나 변형하고 개선하려는 충동은 인간이 지닌 근본적 특징이며 본능이다. 포스트휴먼 담론에 신중하게 비판적인 헤일즈조차 “사이보그는 실제로 존재하며”, 1999년 “현재 미국 인구의 약 10퍼센트를 기술적 의미에서 사이보그로 추정하며”, 또한 “은유적인 의미에서 사이보그가 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115)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두 ‘호모 몬스터쿠스’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비인간의 이질적인 연결망, 사회기술적인 연결망, 하이브리드, 괴물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으며, 보다 진화된 괴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 인류, ‘호모 몬스터쿠스’는 미분된 차이와 변이들을 끊임없이 생성하면서 진화중이다. 찰스 다윈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본령은 차이와 변이의 생성을 통한 적응임을 자신의 진화적 메커니즘을 통해 천명했다. 여기서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말한다. 그는 종, 집단의 경계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즉 종 안의 개체는 매우 다양하고 차이는 연속적이라서 종의 구분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의 차이와 구분은 종류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단계”(numberless gradations)적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Darwin, 1981 : 35). ‘호모 몬스터쿠스’도 마찬가지다. 이들 종 안의 인간과 괴물의 차이는 단지 이질적인 연결망

들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한 괴물을 통해 근대의 정화와 번역이 양산한 인간-비인간의 이질적인 연결망인 하이브리드, 괴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는 순수하게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비인간과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 전통적 개념의 정화된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인간을 매개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단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은 인간-비인간의 결합, 하이브리드, 괴물들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호모 몬스터쿠스’였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은 사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즉 민주적이지 않은 독단적인 기술과학의 문제점을 가시화한다. 그는 근대 정화와 번역의 과정에서 생산된 나쁜 번역의 결과이다. 그와 같이 정화나 번역으로 왜곡되지 않았더라면 괴물은 혐오스럽고 위험한 상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실현 가능한 포스트휴먼의 선구자가 되었을 것이다. 문학은 과학 이론의 성과나 가정, 실패들을 극대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과학을 리드하는 한편, 과학이 생각 못할 때도 문학적 특유의 상상으로 과학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이러한 문학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또한 명증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휴먼에 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고,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타진하는 이때에 “세계 인구의 약 70퍼센트가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다”(Hayles 20)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관심을 늦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포스트휴먼 분야의 핵심인 과학과 기술이 역사, 문화, 문학, 경제,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 깊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에 비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자율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으며 라투르의 표현처럼 세속적이다. 그래서 라투르와 칼롱은 과학과 기술의 자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한다. 전승준은 “우리 과학문화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발표에서 15년간(2002-2017) 정부의 기술과학 예산이 200조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나? 질문하면서 기술과학자가 원하는 연구가 아닌 사회가

원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 200조가 만들어내는, 사회가 원하지 않은 산물이 바로 하이브리드, 괴물일 것이다. 현대의 괴물, 포스트휴먼에 관한 환영과 찬양이 특정 기술공학 산업의 산물을 매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진보할수록 우리와 사물과의 직접적 접촉이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원자와 DNA의 시대에는 사물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긴밀해진다. 그래서 라투르는 과학과 기술의 우회를 고려하지 않는 학문을 비난하면서 “기술과학 없는 인문학은 원숭이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70)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ANT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연결망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실패한 기술과 사회적 요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 이론으로 확장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주어서 사회학은 물론이고 인류학, 문화연구, 지리학, 환경학, 경영학, 정보학, 경제학, 정치철학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ANT를 적용해 문학작품을 분석한 적은 없었다. ANT 관점에서 19세기 영소설 속의 블랙박스인 괴물 존재를 살펴본 이 연구는 ANT를 문학작품 분석에 적용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참고문헌 ■

- 김종갑(2005). “공동체의 구성원리로서 아름다운 몸과 추한 몸-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영어영문학』, 제51권 1호, 202-225.
- _____(2013). “해설”. 『프랑켄슈타인』(김종갑 역). 서울 : 지식을 만드는 지식, 9-33.
- 김환석(2011).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기술과학과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83, 11-46.
- 라투르, 브뤼노(2012).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 인간과 자연, 과학과 정치에 관한 가장 도발적인 생각』(이세진 역). 고양 : 사월의 책.
- 메네갈도, 질(2004). 『프랑켄슈타인』(이영목 역). 서울 : 이룸.
- 시몽동, 질베르(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김재희 역). 서울 : 그린비.
- 신상규(2013). “서문 :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이화인문과학원 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장정희(2004). 『프랑켄슈타인』. 파주 : 살림출판사.
- 전승준. “우리 과학문화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연구재단 정책세미나. 2014. 8. 11.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photo/view.jsp?show_no=289&check_no=333&c_relation=found

- &c_relation2=14&c_no=0&c_now_tab=0&page=1&NTS_NO=51464(검색일 : 2014.8. 14.).
홍성욱(2010).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홍성욱 편). 서울 : 이음, 15-35.
- Blumberg, Mark Samuel(2009). *Freaks of Nature : What Anomalies Tell Us about Development and Evolution*. New York : Oxford UP.
- Brooks, Peter(1993). *Body Work : Objects of Desire in Modern Narrative*. Cambridge, Mass. : Harvard UP.
- Callon, M., P. Lascoumes, & Y. Barthe(2009). *Acting in an Uncertain World : An Essay on Technical Democracy*.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 Darwin, Charles(1962).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New York : Collier Bks.
- _____(1981).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Princeton, N.J. : Princeton UP.
- Deleuze, Gilles(1994). *Difference and Repetition*. Translated by Paul Patton. New York : Columbia UP.
- Deleuze, Gilles & Felix Guattari(1987). *A Thousand Plateaus :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arreau, Joe(2005). *Radical Evolution : The Promise and Peril of Enhancing our Minds, Our Bodies-and What It Means to be Human*. New York : Doubleday.
- Gilbert, Sandra M., & Susan Gubar(1979). Horror's twin : Mary Shelley's monstrous Eve. *The Madwoman in the Attic :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 Yale UP. 213-247.
- Hayles, N. Katherine(1999). *How We became Posthuman :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Il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t, Terrence(1990). Teaching *Frankenstein* as science fiction. IN Stephen C. Behrendt(Ed.), *Approaches to Teaching Shelley's Frankenstein*. New York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12-120.
- Latour, Bruno(1983). Give me a laboratory and I will raise the world. IN Karen Knorr-Cetina and Michael Mulkay(Ed.), *Science Observed*. London : SAGE. 141-170.
- _____(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ss. : Harvard UP.
- _____(2004). *Politics of Nature : How to Bring the Sciences into Democracy*.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ss. : Harvard UP.
- Law, John(1992).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network :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5(4), 379-393.

- Mellor, Anne K.(1995). A feminist critique of science. http://homepage.ntlworld.com/chris.thorns/resources/Frankenstein/A_Feminist_Critique_of_Science.pdf(검색일 : 2014. 8. 14.).
- Moretti, Franco(1982). The dialectic of fear. *New Left Review* 136, 67-85.
- Naam, Ramez(2005). *More Than Human : Embracing the Promise of Biological Enhancement*. New York : Broadway Books.
- Shelley, Mary(2008). *Frankenstein*. London : Oxford UP.

■ Abstract ■

Homo monstercus : The Monster in Mary Shelley's *Frankenstein*

KEE-WHA JOO***

This essay analyzes the monster in Mary Shelley's *Frankenstei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nonhuman network, which I propose to call Homo monstercus. In the 19th century British novels, monsters functioned as metaphors of the Other, or as allegories of human nature. That explains why psychology, feminism, psychoanalysis, and postcolonialism were introduced to explain the nature of the monstrosity of the monster.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mechanism of transforming Dr. Frankenstein's creature to a monster, in this paper I will reinterpret such process of transformation from the vantage point of contemporary philosophies of science, such as Gilbert Simondon's 'theory of individuation', Gilles Deleuze's 'becoming', and Bruno Latour and Michel Callon's 'Actor-Network-Theory' (ANT).

Keywords : Frankenstein, Homo monstercus, becoming-monster, posthuman, Actor-Network-Theory(ANT), Bruno Latour, Michel Callon

■ 논문투고 : 2014년 8월 31일 논문심사 : 2014년 9월 10일-9월 25일 게재확정 : 2014년 10월 8일

*** KONKUK UNIVERSITY